

광주 5년내 3만가구에 태양에너지 공급 가능

시의회-광주환경운동연 공동 '태양도시 광주' 포럼 청사 등 1000여곳에 태양광 도입 8만kW 전력 생산

울 봄과 여름, 전국의 기온과 고온 현상에 시달렸다. 지난달 말 블라벤과 덴빈, 그리고 최근 산까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고온과 해일, 태풍 등의 이상기후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파괴력과 그로 인한 피해양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자체마다 화석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국제태양에너지학회 개최와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솔라시티'(태양도시·Solar City)로의 변모를 꾀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태양 관련 산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 공동으로 태양도시 광주시의회 포럼이 '태양도시 광주'를 주제로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를 주제로 열렸다.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차인수 동산대 수

소에너지학과 교수의 '태양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의 태양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8년 1113toe의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해 전국 7대 도시 중 서울(2211), 대구(1351), 대전(1205)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의 경우 모두 6517MWh를 생산해 서울(4988), 대구(3756)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광주의 태양열 생산량은 1024toe로 줄었다.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 설치의무화사업, 시범보급사업, 자율보급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1차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광주시가 연구·기업지원기관,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아시아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구시의 솔라시티와 상급 및 경쟁체제를 구축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 주최로 18일 오후 광주시 회의실에서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를 주제로 기후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광주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유치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계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상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운영위원은 '도시에서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의 사례' 주제발표에서 광주는 전력생산과 자립도면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실질적인 주체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 중앙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체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수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를린 태양청사, 프라이부르크 기후행동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는 지자체가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년 이내에 3만 가구에 태양에너지 공급=기후포럼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는 5년 내에 3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5만~10만 가구까지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 청사를 비롯해 공공청사 지

붕, 옥외주차장, 학교 지붕 등 1000여곳의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도입하면 8만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8만kW의 전력은 2만6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기업이나 민간이 소유한 대형 건축물이나 옥외 주차장 등 300여곳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하면 1만5000kW의 전력을 추가 생산해 5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과 지역경제, 지역의 대학과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태양에너지 도입에 따른 제도적 정책, 그리고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추석연휴 환경오염 '128' 신고하세요

환경부 19~28일 공장밀집지역 등 특별점검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19~28일 공장 밀집지역과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공단 지역과 주변 하

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다음 달에는 가동 중단 등의 이유로 오염물질 처리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유선전화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북극 여름철 해빙 4년내 소멸 가능성

지구 온난화 원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지구 온난화로 4년 내 북극의 여름철 해빙(海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빙하 전문가인 피터 워드햄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극 여름철 해빙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 4년내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워드햄 교수는 북극 여름철(8~9월) 해빙 면적이 지난 2007년 417만km에서 올해는 350만km로 줄었다면서 북극 여름철 해빙의 소멸 위기를 경고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잠수함을 이용해 자료를 확보한 워드햄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겨울철에는 해빙이 과거보다 적게 생성되고 여름철에는 더

많이 녹고 있다"며 "2015년~2016년 여름철에 북극 해빙이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드햄 교수는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북극 지역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많은 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생긴다는 긍정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급격하게 녹아 이 지역에 묻혀 있는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하는 "지구 재앙"(global disaster)이 발생할 수 있다고 워드햄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십년 간에 걸쳐 어떤 대책을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태양 광선을 우주로 돌려보내는 등 지구공학적 대책들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산바' 남해안 상륙 태풍 중 5번째로 강해

올해 태풍 더 발생해도 우리나라엔 영향 없을 듯

영남지방을 관통한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역대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강한 위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산바가 상륙할 당시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hPa)로 관측됐다. 이는 지금까지 남해안을 밝은 태풍들이 상륙하면서 보인 중심기압 가운데 다섯 번

째로 낮은 것이다.

기압이 낮은 곳을 향해 바람이 빨라 들어가는 태풍의 특성상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 것으로 본다.

역대 가장 강한 위력을 지닌 제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1959년 사라(SARAH)로 951hPa의 중심기압을 기록했다.

2003년 매미(MAEMI·954hPa), 2000년 사오마이(SAOMAI·959hPa), 2002년 루사(RUSA·960hPa)가 뒤를 이었다.

산바는 일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할 당시 매미와 똑같이 중심기압이 910hPa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 근접해서 매미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남해를 비롯한

우리나라 근처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 0.5~2.5도 낮았기 때문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매미 때는 남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아 태풍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했다.

산바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약했던 또다른 이유로 기상청은 빠른 이동속도를 꼽았다.

산바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이동경로와 위력이 비슷한 루사는 24시간 가까이 육상에 머무르며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산바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가다 러던 상층 기압골에 합류하면서 시

속 30~40km의 빠른 속도로 내륙을 통과했다. 그러나 루사 때는 이렇게 속도를 붙일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올해 태풍이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의 진로를 사실상 결정짓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81~2010년 10월에 연평균 3.6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3개로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왔다.

11월과 12월도 각각 2.3개, 1.2개씩 태풍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기상관측사상 올 8월 4번째로 더웠다

전 세계 평균기온 0.62도 높은 16.22도

올해 8월이 188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4번째로 더운 8월이었다고 미국 국립기상자료센터(NCDC)가 밝혔다.

NCDC에 따르면 올 8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16.22도(화씨 61.22도)로 20세기 평균보다 0.62도(1.12도) 더 높았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기온은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 동부, 중유럽, 남유럽, 중동 아시아에는 불발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북극 해빙 면적도 410만km로 낮아져 2007년 9월의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 8월은 20세기 평균기온보다 높았던 330번째 달로 기록됐다. 평균기온보다 낮았던 것은 1985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NCDC는 또 이번 달에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가 나타나면 미국 북부는 겨울이 평균보다 따뜻하고 건조해지지만, 남서부와 남동부는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정역동(주유소) 대지면적 2,498㎡ 감정가 269억4천 최저가 189억4천	대촌동(공장) 대지면적 2,340㎡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7억9천	두암동(목욕탕) 대지면적 2,125㎡ 감정가 12억9천 최저가 6억6천	쌍암동(나이트) 대지면적 2,309㎡ 감정가 89억7천 최저가 32억3천	농성동(근린시설) 대지면적 2,702㎡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6억7천	소태동(독서실) 대지면적 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남평읍(창고) 대지면적 2,329㎡ 감정가 8억7천 최저가 3억9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군산(비오공정)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완주 봉동(대형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정가 135억 ▷ 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	● 공동(목욕탕)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 10억 ▷ 매매가 5억2천(협의후결정)
● 용동(하이소프랙스) ▷ 대지 4076평 ▷ 건물 1294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 월산동(주유소) ▷ 대지 230평 ▷ 건물 105평 ▷ 감정가 15억5천 ▷ 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	● 군산 (공장) ▷ 대지 1999평 ▷ 건물 687평 ▷ 감정가 25억 ▷ 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삭이실/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리빌딩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 실현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다룸(주방, 욕조, 샤워실)

〈토지구할〉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농지,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택(원가)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매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임3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농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오동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평면 장성초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08949.co.kr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업 전 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양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소재사건대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원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400평(31억)
- 임대보증금 95억 월임 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석당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일) (회사사무,옥스빌등 적합)
- (동래지구)중주거지 운안-해안 간대로변 4,470㎡(약1,352평) - 평당330만 (메시정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우여타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현 1층